

광주비엔날레 내외신 기자들 호평 '성공예감'

“세계에 신선한 충격 던졌다”

“광주비엔날레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세계 비엔날레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세계적인 큐레이터 오쿠이 엔위저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전시였다.”

제7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하루 앞두고 4일 열린 ‘프레스 오픈’에 세계 유수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외국 취재진들은 비엔날레 전시관에 출품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높은 관심과 함께 호평을 쏟아내 ‘성공비엔날레’를 예고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에 재단 회의실에서 내외신 언론 초청 프레스 오픈 행사를 열었다. 이날 프레스 오픈에는 뉴욕타임스(미국),

산케이신문(일본), 르 몽드(프랑스), 인민일보(중국), 저먼TV(독일), 러시아 NTV미국 등 해외 주요 언론 50여개사와 아트 인 아메리카, 플래쉬아트 등 외국 미술 전문잡지 등에서 모두 2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큰 성황을 이뤘다.

또 데이빗 엘리엇(Davit Eliot) 일본 모리미술관 관장(전 국제현대미술박물관 위원회 상임위원장), 케이 소피 라템마이어(Cay Sophie Rattemeyer)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감독 등 세계 미술계를 이끌고 있는 유명 인사 70여 명도 참석해 광주비엔날레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했다.

이날 프레스 오픈 행사는 재단이 사장이인 박광태 광주시장의 환영사

와 오쿠이 엔위저 예술감독의 내외신 초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오쿠이 감독은 전시 설명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엔날레가 확산된 데에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제 한 뒤 “이번 전시는 현대예술의 다양한 작품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내외신 초청 설명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비엔날레 전시관, 시립미술관, 대인시장 등 전시장 5곳을 돌며 36개국에서 초대된 126명의 작품 1천 여점에 만족감을 표露出了.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미술잡지

‘무스 매거진(Mousse Magazine)’의 아나 데너리(Anna Danery) 기자는 “전시 자체가 주제가 없다 보니 많은 작가들의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로웠다”면서 “상하이를 비롯해 많은 비엔날레가 점차 상업성을 띠고 있는 반면 광주비엔날레는 실험적인 현대미술의 장이라는 본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노형석 기자도 “전시 형식 자체는 상당히 깔끔하고 정제된 느낌을 준다”면서 “작가, 큐레이터, 총감독의 호흡이 잘 맞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전시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참여재판 신청 ‘뚝’

광주지법 접수 7건 중 4건 피고인들이 철회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9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피고인들의 외면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광주지법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모두 7건. 그나마 참여재판을 통해 판결이 난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

4건은 피고인들이 철회했으며, 1건은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어서 피해자의 출석 확보가 어렵고 미성년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해 참여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참여재판으로 연결된 사건은 전체 신청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가 주로 중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턱없이 낮은 수치라는 것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상황을 보더라도 지난 8월 말까지 총 158건이 접수돼 이 중 22.2%인 35건만이 판결로 이어졌으며, 재판부 배제와 피고인 철회가 각각 40건·60건이 나왔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기대와 달리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신청 당사자인 피고인 스스로 참여재판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지법 최인규 공보관사는 “피고인들이 사건 초기에는 참여재판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 우선 신청하고 보자는 식이었지만, 참여재판 신청 사건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히 국민참여재판을 했다가 배심원들의 시선과 여론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596) 김장두



4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프레스 오픈에서 참석자들이 중고 자동차 문을 소재로 환경문제를 고발한 사무스 파렐(스페인)의 ‘유엔서클(U.N.Circle)’을 관람하고 있다.

조달청 공무원·건설업체 싸고

대형 국책사업 입찰 비리

조달청 공무원들과 입찰 심사위원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알려줘 건설사가 대형국책사업을 따낸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일 전남 지역 G건설사가 국도공사 입찰을 수주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조달청 5급 공무원 안모(50)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모(49)씨 등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조달청 ‘최저가 적정성 심사위원회’ 참여 위원 박모(47)씨 등 10명을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달청 기술심사관인 안씨는 지난해 2월 조달청이 입찰대행한 372억원 규모의 ‘남산~춘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심사위원 명단을 G건설 임원에게 건네주고 심사 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청 전·현직 직원인 이씨와 외부 기술평가 위원인 박씨 등은 G건설이 적정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1인당 300만원~700만원씩을 챙긴 혐의다.

한편, G건설은 지난해 11월 830억원 규모의 부도를 냈으며, 박모(41)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임원들은 1천800억원 상당의 불법 어음할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징역 8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주)금복시스템. It features the KCC logo and text: '다 좋은 건국·산업지체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만영'.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사무실: 02) 3445-0943' and '나주공점: 061) 337-0571'.

美부대사 전남대 방문 향의 소동

○전남대 총학 생회 학생들이 주관한 미국부대사의 학교 방문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학교 측에 항의하는 등 한 때 소동.

○전남대에 따르면 총학생회 학생 20여명은 4일 오후 3시께 빌 스탠튼 주한 미국부대사가 김운수 총장을 면담한 뒤 대학생 10여명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던 대학 본부 3층에 몰려가 기습 퍼켓시위를 벌인 것.

○5일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차 광주를 찾은 스탠튼 부대사는 학생들의 항의에 학교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급히 본관을 떠나 차에 몸을 실었다.

○학생들은 대외협력부를 찾아 “학교 측은 우리들의 반대 시위가 두려워 주한 미국 부대사의 학교 방문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김일성 사랑해’ 벽화 전시 논란

여수 국제미술전

여수에서 열린 국제미술전시회에 ‘우리는 김일성을 사랑한다’는 영문 글귀가 적힌 작품이 전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2008 여수 국제아트페

스티벌’ 본전시관인 여수 광무동 진남문화회관 벽면에는 ‘Samsung vs. Kim Il Sung(삼성 대 김일성)’이라는 제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핀란드 출신의 비주얼 아티스트로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리코 사키넨(32)이 그린 이 벽화 상단에는 ‘WE LOVE SAMSUNG AND KIM IL-SUNG’

(우리는 삼성과 김일성을 사랑한다)’고 적혀 있고 아래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돼지가 그려져 있다.

돼지 원판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으며 이 가운데는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브랜드’라는 제목 아래 현대, 엘지, 삼성, 김일성, 김정일, 대한항공, 한라당 등이 나열된 것도 있다.

이같은 글귀에 대해 일부 관람객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공안당국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예술 작품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편협한 시

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수경찰은 이 작품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관계자는 4일 “유관 공안기관과 작품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가가 외국인이고 작품이 이적성이 없는 예술행위 일환으로 보여진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Advertisement for '물온수 보일러 매트!!' (Water Heated Mat).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at and text: '전기로 사용하는 물온수 매트!!', '100% 국내생산', '신일중앙매트상사', 'TEL. 0621528-7400', 'H.P. 010-5141-2528'.

Advertisement for '일중한의원' (Iljunghwan Hospital).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doctor and text: '일중한의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한방', '0621 676-1075'.